

多島海 국립공원 所安港

裝備침단화 人力難해소 時急

어항공사는 다른 공사와는 달리
인부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요 업무가 오히려 인부 구하는 게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강 봉 술 <金光企業(株) 現場所長>

소 안항은 전남 완도군 소안면 맹선리에 위치한 수산청 제3종 어항이다.

소안항이 수산청 제3종 어항으로 지정된 것은 지금부터 20년이 넘는 1971년- 그러나 본격적인 개발이 착수된 것은 1985년으로 올해 제8차 공사가 시행됐다.

제3종 어항으로 지정된 기간에 비해 개발이 늦은 것은 이 지역 수산업의 특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잘 알고 있다시피 완도지역은 어선어업 보다는 아무래도 김, 미역같은 양식어

업이 훨씬 발달한 곳. 이같은 고정관념은 아무래도 이곳 소안항의 개발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만 보다 자세한 내용을 꼼꼼히 잘 살펴본 사람이라면 이같은 선입견이 어촌지역 사회의 발전을 얼마나 더디게 만들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관내 어가수가 90여구에 이르며, 어업인구수도 340여명이나 된다. 어선수도 동력, 무동력선을 합하여 1백 50여척 가까이 되며, 더욱이 놀라운 것은 벽지섬에 위치한 어항이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루 평균 2척 이상, 연간 730여척의 외래어선이 꾸준히 소안항을 찾는다는 사실이 다.

이는 여러가지로 의미가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안도를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고 있지만 주위에 유사시나 혹은 각종 선수물자 공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어항이 별로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조금 뜻밖의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소안항 관내 어선어업의 실적을 보면 결코 만만치 않다. 우리가 통상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완도지역이기 때문에 해조류가 대부분의 소득원이겠지 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육지와 멀수록 공사애로 많아

어획되는 어종만도 돔, 넙치, 농어 등 이른바 주요 고급 어종으로 연간 840여톤 어획에 22억4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말하자면 남해로 펼쳐지는 청정해역의 한 모퉁이에 있는데다, 해안이 잘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단 출어를 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어항을 찾으려면 소안항을 중심으로 제1종 어항만인 완도항이 28km, 제1종 어항인 마량항이 42km, 제3종 어항인 청산도항이 27km나 떨

어져 있어 여러가지 많은 곤란을 받아 왔다.

사실 말이 30~40km이지, 육지에서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바닷길은 참으로 멀고 먼 뱃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지역적인 사정, 위치적인 중요성이 뒤늦게 고려되어 개발에 들어간 곳이 오늘날의 소안항인 셈이다. 소안항의 개발, 건설규모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 북방파제 475m 건설에



27억원 △ 서방파제 390m 건설에 55억2천만원 △ 물양장 120m 시설에 4억4천만원 △ 호안시설 55m에 9천만원 △ 선양장 30m 시설에 1억5천만원 등 모두 약 89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올해 8차 공사를 마무리 했다.

올해까지의 공사 진척상황은 북방파제 335m, 서방파제 30m, 호안 20m, 물양장 하부 120m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안항을 개

발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보다도 육지에서 너무도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지형상 무수한 어항이 낙도 벽지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특히 소안항은 완도 서남쪽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중심부의 외해에 멀리 떨어져 있다.

공사현장이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과 상통한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소안항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이 곳이 외해에 위치해 있음에도 파도의 영향이 적은 양호한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근해 어장에 조업하고 있는 어선이 악천후시 긴급대피항으로서의 이용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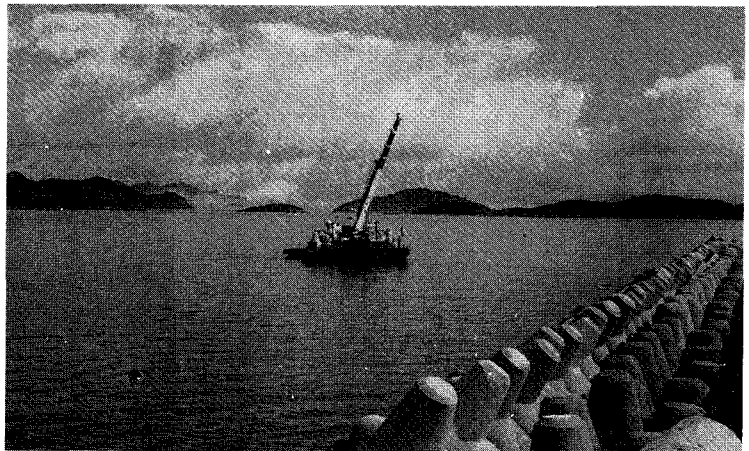
말하자면 개발공사의 당위성은 이 두가지가 묘하게 괴리된 현상을 일치시켜야 하는 그런

**기상 악천후는
 오히려 전딜만 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결정해 주는
 일이기에 그러했다.
 다만 태풍 내습기를 피한
 조기 발주, 조기 완공의
 개념이 일반화되어
 시기를 적절히 조정해
 준다면 이는 머잖아 쉽게
 해결될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이같은 고생의 보람으로
 이제 소안항의 위용이
 서서히 드러났다.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힘든 작업이었다.**

어려움을 갖는다는 것이다.

낙도공사일수록 인부확보난

어느 어항공사나 최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소안항 공사 역시 첫째, 인부 부족, 둘째, 자재 구득난, 셋째, 기상 악천후, 넷째, 수자원 부족의 공통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우선 인부 부족은 이제 일시적인, 혹은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항공사에 있어서 하나의 구조적인, 앞으로 어항업계가 헤쳐 나가야 할 최대의 과제로 떠오른 감이 없지 않다.

우리 금광기업주식회사(대표 고재철)가 8차에 걸쳐 소안항 공사를 진행해 오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어찌된 일인지 최근엔 인부들을 구하려 하면 현장이 어디

나고 되묻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 되었다. 만약 섬지역이라면 뒤도 안돌아보고 거절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만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육지로부터 격리된 협소한 공간, 절대적으로 적은 인구, 미흡한 문화시설, 낙후된 환경, 취약한 교통편은 그들을 이러한 어항공사에 끌어들이는데 너무도 부족함이 많았다.

그러나 어항공사는 다른 공

사와는 달리 인부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요 업무가 오히려 인부 구하는 게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허긴 섬지역에 살고 있는 유능한 젊은 인부들조차 미련없이 떠나고 있는 마당에 육지에서 이들을 섬으로 끌어들이기가 용이하지 않음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앞으로 어항공사에는 인력동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각종 장비를 첨단화, 자동화, 기계화 하는 방안이 빠른 시일내에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어항공법에 대한 꾸준한 연구만이 하나의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자연보호와 상치될때도 피말리는 공사진척

다음으로 자재 구득난도 심각한 골치거리였다. 특히 건설경기가 한창 하늘을 치솟던 최근 몇년간은 철근, 시멘트, 레미콘의 원활한 공급이 안돼 많은 고생을 했다.

더욱이 이를 해상으로 수송해 와야 하는데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몇차례의 과정을 거쳐 겨우 작업을 실시하고 나면 또 한동안 중단되고..... 이러기를 여러 차례, 정말 피를 말리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

모름지기 어느 공사나 마찬가지로 공사란 영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그뿐이라. 장비라도 고장이 나는 날이면 커다란 낭패였다. 완도읍내로, 목포로, 여수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일이 이제는 오히려 하나의 추억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어항공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산개발도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특

히 최근 자연보호운동과 석산개발이 묘하게 맞물려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소안항은 다도해의 해상국립공원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주변에 절경이 많고, 천혜의 자연의 신비를 만끽할 수 있는 자원이 수없이 널려 있다.

이것이 어항공사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겨 주는 것이다. 수많은 돌을 바닷속에 집어넣어야 하는 어항공사의



특성상, 이같은 석재를 쉽게 채취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았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면 자연 훼손이니, 무분별한 석재 채취니 하는 덤탕이를 쓸 판이니 더욱 그랬다.

또한 어렵사리 이를 구했다 해도 양식어민들과의 마찰이 우리를 기다렸다. 민원이 야기되고, 보상문제가 거론되면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기상 악천후는 오히려 견딜

만 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결정해 주는 일이기엔 그러했다. 다만 태풍 내습기를 피한 조기 발주, 조기 완공의 개념이 일반화되어 시기를 적절히 조정해 준다면 이는 머잖아 쉽게 해결될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이같은 고생의 보람으로 이제 소안항의 위용이 서서히 드러났다.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힘든 작업이었다.

공사가 마무리 됐을 경우 10톤급 어선 540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으니 이 지역에서는 지역발전의 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그때, 어민이나 지역주민들이 우리의 노력과 고통을 알게 되리라 생각하면 남은 공사도 이제는 그렇게 험거운 생각이 들지 않는다.

수산청 감독관을 비롯,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